

하승철군수님에게
조심스럽게 글 올려봅니다
늘 스마일 선한시선으로 미소짓
고 계신 군수님을 행사로 가끔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던 군의 직
원입니다^^~

청년 인구 정책에 더욱 관심이
크신 군수님에게 말하고 싶습니
다

소통변화활력을
꿈꾸시는 군수님

그것에 반하는
담당공무원과
청소년과 직접 만나고 있는
학부모를 노하게 하는
청소년을 다그치는
공무직직원의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건강한공무직의 의견은
선비고 약자라 무시하며
불건강한공무직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한쪽의 속삼임에
귀 기울임에는

하동군 정책
군민과 함께
인구청년정책
공감하고 열린공간에서
꿈을 이루려는 청소년에게
시설의 교육적 효과에
점점 더
치명적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에게 어디서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로 가 소명으로
행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건강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피하거나 일방적이거나
들어주나

건강하나 성실하나
현실은 약자이거나

몇몇 공무원을 만나려

애를 썼보았지만 못 만났고 들어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느꼈습니
다

그래서

하승철 군수님을

꼭꼭 잠시라도 만나 뵙고

의견드리고픈

또한 저의 평생 소명으로

하승철 군수님의 청년정책에 너

무나 반가워 환호한 전문가로서

찬찬히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